

ESCO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지난 7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61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발맞추어 ESCO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여 기술력 향상에 투자한 업체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그 동안 기존 제도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대처한 업체는 심화되는 불경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부담을 포함하여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ESCO사업을 '내일의 희망' 과 '위기의식' 으로 채색된

씨줄과 날줄로 짜 내려간 한 폭의 풍경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SCO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2개의 요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나 자신이 '내일에 대한 확실한 희망' 을 갖는 것이다. 즉,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하·동료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간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만들어지며, 이와 더불어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 위치에서 비전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글 최진영 부장
SK(주) ESCO사업부

一言一社

올 봄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인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3회 모두 내가 속한 홍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홍팀의 리더는 내가 잘 아는 장교 출신의 중간 경영자였다. 그는 먼저 팀을 3인 1개조씩 편성하고 리더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조별로 파이팅을 부탁하였다.

야산의 능선에서 서로 마주보고 공격하는 전면전에서 우리 팀은 리더와 각 조별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면서 적의 포착과 동시에 조별 상호연락을 통하여 신속히 집중 공략함으로써 적을 제압하였다. 이에 2회 연속승리의 만족감이 팀원 스스로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지를 탈환하는 공방전에서는 우리 팀이 위쪽으로 공격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팀 리더가 교전 중에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한 명이 의욕적으로 팀을 리드하여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작은 게임에서 승리를 이끄는 과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ESCO사업의 진행과정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머지 하나는 내가 현재의 시장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상호간에 협력하고, 일을 통하여 한 가족이라는 믿음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를 잘 육성시켜 상호간 win-win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재빨리 대처하여 성장기의 상품을 탐색·선점하고, 자신의 의식구조와 회사의 시스템을 시장규칙에 맞게 잘 적응해 나가는 변화관리가 필수적이다.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10년 만에 순이익 100억원을 달성하고도 지금도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 인터뷰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볼 때 위기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ESCO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ESCO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산업체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LFG, 바이오가스), 기후변화협약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 들어 소형열병합발전사업(CHP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고민 속에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무한경쟁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웃소싱하여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성장성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나갈 것이다.

